



유승민 대한탁구협회 회장(IOC 위원)과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21일 서울 강남구 노보텔 엠베서더 강남 호텔에서 열린 한국프로탁구리그 타이틀스폰서 협약식에서 협회-두나무 간 후원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탁구 프로리그는 내년 1월 출범한다.

한국형 탁구 프로리그 구축

내년 1월 개막... 유승민 탁구협회장 "빠른 시일 내 적합한 모델 구축"
두나무와 리그 타이틀 스폰서십 계약 체결로 프로 시대의 도래 알려

탁구 프로리그 출범을 주도한 유승민 대한탁구협회장이 빠른 시일 내 적합한 한국형 모델을 구축해 납부받지 않은 리그로 카운트다운을 아슬한 계획을 내놨다. 대한탁구협회는 21일 서울 노보텔엠베서더 강남에서 두나무와 한국프로탁구리그 타이틀스폰서십 계약 체결식을 갖고 프로 시대의 도래를 알렸다. 2000년대 초반부터 프로리그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를 위해 물밑에서 노력해 온 대한탁구협회는 올해 초부터 한국살업탁구연맹과 본격 협업체 작업에 속도를 냈고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디지털 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며 블록체인 및 핀테크 전문기업 두나무는 타이틀스폰서로 참가해 2년 간 총 2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2022 두나무 한국프로탁구리그라는 명칭과 코리아리그(1부리그)·내셔널리그(2부리그) 등이 나뉘어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는 큰 틀은 수립했지만 타 프로 종목에 비하면 걸음마를 댄 수준에 불과하다. 리그를 주관할 별도 기구인 프로연맹은 아직 설립 절차를 진행 중이다. 당연히 팀별 연고지 신인 선수 선발 방법 셀러라캡 등 프로화와 댄 수 없는 구체적인 요소들 역시 미뤄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대한탁구협회가 서둘러 프로리그를 출범시킨 것은 2020 도쿄올림픽이 끝난 직후인 올해를 그 적기로 봤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

광부는 대한탁구협회의 질의에 지금 프로리그를 만들어도 무방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유 회장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했다. 탁구가 도쿄올림픽을 통해 관심을 많이 받았고, 코로나19로 선수들이 많은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어 리그 출범이 절실하다는 쪽에 모든 탁구인이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 회장은 "프로연맹이 창립한 건 아니지만 내년이 역사적인 프로 원년이 될 수도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출범과 동시에 위원회를 구성해 연맹 창립 절차를 준비하겠다"면서 "첫 1~2년은 시행착오를 겪어가며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탁구 강국으로 분류되는 여러 나라들은 이미 프로리그를 보유 중이다. 세계 최강인 중국은 물론 일본도 2018년 T프리미어리그를 출범해 운영 중이다. 그 밖에 독일, 러시아, 프랑스 벨기에 등이 자국리그를 통해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돕고 있다. 유 회장은 "드래프트, 승강제, 외국인 선수 등의 문제가 있는데 진행하면서 틀을 짤 것"이라며 "우리나라 프로리그는 주로 모기업이 운영하는 시스템이고, 외국은 스폰서십과 지역이 맞는다. 이를 접목해 완성형 한국형 모델을 만들려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추후에는 한국, 일본, 중국 우승팀이 모이는 챔피언스리그도 기획 중이다. 유 회장은 "일본, 중국, 인도 등과 합의가 되면 긍정적으로 본다. (다음달) 세계선수권을

위해 휴스턴에 가는데 중국, 일본 관계자들과 만나 충분히 이야기 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주세혁 미디어홍보위원장은 "지금은 일본 리그 우승팀과 한국리그 우승팀이 한 번씩 오가면서 결정전을 갖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프로리그의 궁극적 목표는 탁구 저변 확대와 선수들의 기량 향상이다. 김택수 전무는 "가끔 한 번씩 하는 대회만으로는 국민과 팬들에게 감동을 줄 수 없다. 프로를 통해 경기수가 늘어난다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2~3년 운영하면 진정한 프로가 될 것이다. 그러면 제2의 부흥기가 다시 한 번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뉴시스

배드민턴 공희용-김소영 덴마크오픈 32강 통과

배드민턴 여자복식 김소영(인천국제공항)-공희용(전북은행), 이소화(신승찬)이상 인천국제공항)가 2021 덴마크오픈배드민턴선수권대회 16강에 안착했다. 2020 도쿄올림픽에서 동메달을 수확한 김소영-공희용은 20일(현지시간) 덴마크 옌세에서 열린 대회 여자복식 32강전에서 쥘리 맥퍼슨-시에라 토렌스(이상 스코틀랜드)를 2-0(21-8 21-12)으로 완파하고 16강에 올랐다. 첫 세트를 21-8로 가볍게 따낸 김소영-공희용은 2세트에서도 12점을 내주는 동안 21점을 챙기면서 승리를 가져왔다. /뉴시스

여자 컬링 '팀 김' 그랜드슬램 마스터스 2연승

여자 컬링 국가대표 팀 김(강릉시청)이 그랜드슬램 컬링 마스터스에서 2연승을 달렸다. 스킵 김은정, 리드 김선영, 세컨드 김초희, 서드 김경애, 후보 김영미로 구성된 팀 김은 21일(한국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오크빌에서 열린 그랜드슬램 컬링 마스터스 2차전에서 팀 에이나스(캐나다·스킵 캐리 에이나스)를 5-3으로 꺾었다. 지난 19일 열린 1차전에서 러시아의 팀 코발레바(스킵 알리나 코발레바)에 4-3으로 이긴 팀 김은 2연승을 달렸다. 팀 에이나스와의 2차전에서 2엔드에 1점을 선취한 팀 김은 3엔드에 2점을 내주며 역전당



했다. 4엔드에 2점을 따내 다시 리드를 빼앗은 팀 김은 6엔드에 동점 점수를 내줬지만, 7, 8엔드에 1점씩을 추가해 승부를 갈랐다. /뉴시스

韓 여자축구 '고춧가루 또 뿌린다'

오늘 '세계 최강' 미국과 친선 1차전... 27일 2차전

여자축구 세계 최강 미국과의 2연전을 앞둔 지소연(철시)이 "멋진 경기를 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콜린 벨 감독이 이끄는 여자축구대표팀은 22일 오전 9시(한국시간) 미국 캔자스주 캔자스시티 칠드런스머시파크에서 미국과 친선 1차전을 치른다. 이어 친선 2차전은 27일 같은 시간 미네소타주 세인트폴 알리안츠필드에서 열린다. 이번 친선 2연전은 스카이스포츠와 쿠팡플레이에서 생중계된다. 미국은 자타공인 여자축구 세계 최강이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에서도 1위로 한국(18위)을 크게 앞선다. 올림픽과 월드컵에서 각각 4차례씩 우승했으며, 지난 도쿄올림픽에서도 동메달을 획득했다. 블라코 안도노브스키 감독이 이끄는 미국은 도쿄올림픽 멤버 대다수가 합류한 채로 한국과 만난다. 주전 골키퍼 엘라사 내어, 미드필더 쥘리 얼츠(이상 시카고)가 부상으로 빠졌지만, 킬리 로이드(고담), 알렉스 모건(울랜드), 매건 라피노(레인), 말로리 류(시카고) 등 호화멤버를 자랑한다. 특히 이번 한국과 친선 2연전을 끝으로 은퇴하는 로이드를 위해 미국은 대승을 노릴 가능성이 크다. 로이드는 A매치 314경기에서 134골을 기록 중인 미국 여자축구 레전드다. 2008년, 2012년 올림픽 금메달과 2015년, 2019년 월드컵 우승을 이끌었다. 또 2015년, 2016년엔 FIFA 올해의 선수상을 받기도 했다. 벨호의 주장인 지소연은 미국이 준비한 축제를 맘껏 누릴 것이다. 그는 경기 전 대한축구협회를 통해 "(2년 전) 미국과 친선전에서 당시 미국 감독의 은퇴사에 우리가 고춧가루를 팍팍 뿌린 기억이 있다. 좋은 경기를 하며 무승부를 거둔 좋은 기억이다. 이번에도 그 기억을 되

살리고 싶다"고 말했다. 2019년 10월 미국 시카고에서 치른 친선 경기에서 한국은 1-1로 비겼는데, 당시 지소연이 골 맛을 본 적이 있다. 지소연은 아시아컵 예선 몽골과 경기에서 자신의 50번째 A매치 골로 남녀 통틀어 한국 선수 최다 득점 1위에 올라 있다. 하지만 객관적인 전력은 열세다. 역대 전적도 13전 3무10패다. 지소연은 "미국은 포지션마다 좋은 선수들이 많지만 우리가 팀으로서 막아낸다면 결코 쉽게 지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도 멋진 경기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2019년 말 부임한 벨 감독은 빠른 공수전환과 강한 압박을 추구하는 '고강도 축구'를 지향한다. 내년 1월 인도에서 열리는 2022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아시안컵 본선을 준비하는 벨 감독은 "우리에겐 좋은 테스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우즈베키스탄에서 치른 아시안컵 예선에서 한국은 몽골(2-0 승), 우즈베키스탄(4-0 승)을 꺾고 본선에 올랐다. 아시안컵 본선은 2023년 호주와 뉴질랜드가 공동 개최하는 FIFA 여자월드컵의 아시아 예선을 겸한다. 개최국 호주를 제외하고 상위 5개 팀이 본선에 직행한다. 아시아컵 우승이 목표인 벨 감독은 세계 1위 미국과 2연전으로 보완할 점을 찾겠다는 각오다. 그는 "1차전은 훈련을 3일 밖에 하지 못하고 치른다. 2차전은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될 것"이라며 "미국은 피지컬이 강하기 때문에 대비해야 한다. 세트피스도 좋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수들에겐 스스로 증명하고 시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축전주매일 창간

임실군의의회

군민의 소중한 뜻을 높이 받들겠습니다.

믿음과 희망을 주는 임실군의의회

열린의정!
은뜸의회!

IMSIL-GUN COUNCIL

임실치즈테마파크